



將兵 · 防衛產業界의 伴侶者

國防部長官

노미현

우리나라는 지금 國土分斷의 시련과 北韓共產集團의 挑戰속에서도 驚異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國軍은 6·25動亂과 北傀의 끊임없는 挑發등 온갖 역경을 이겨 韓半島의 安全과 평화유지에 注力해 왔으며, 이제 莫强한 전력을 갖추고 自主·自力防衛의 시대에 접어들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의 우리 國防施策은 軍의 精神戰力을 강화하고 陸·海·空軍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前後方의 경계태세와 初戰必勝의 임전태세를 강화하며, 나아가 自主國防태세를 확립하고, 韓美相互防衛協力體制로 敵의 전쟁도발을 事前에 억제하는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國軍은 우리 스스로가 개발한 最新武器와 장비로 完璧하게 무장하여 敵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粉碎할 수 있는 自信感 넘치는 成年國軍으로 長足の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美國의 無償軍援이 事實상 종료된 지난 75년부터 우리는 防衛豫算을 國民의 세금으로 감당하게 되었고 10月維新으로 굳혀진 國民의 總和安保 態勢와 날로 增大 一路에 있는 經濟力등 國력의 뒷받침은 自力防衛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祖國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國民的 의지와 우수한 技術人力의 개발로 우리의 防衛產業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北傀는 어제도 오늘도 南侵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휴전선 도 처에서 두터지처럼 땅굴을 파들어오고 있어 우리는 잠시도 警戒와 戰鬪 準備의 태세를 늦출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의 生存權과 自主性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것은 오로지 防衛力의 증강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最新 國防科學技術知識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 防衛產業을 우리 손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敵의 어떠한 挑發에도 卽刻 對處하고 이를 粉碎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韓國軍需產業振興會가 발간하는 “國防과 技術”誌는 우리 國軍 將兵들은 물론 產業人, 學生들과 防衛產業關係者 諸位의 귀중한 敎養誌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伴侶가 될것으로 確信합니다.

貴誌의 發刊을 祝賀하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